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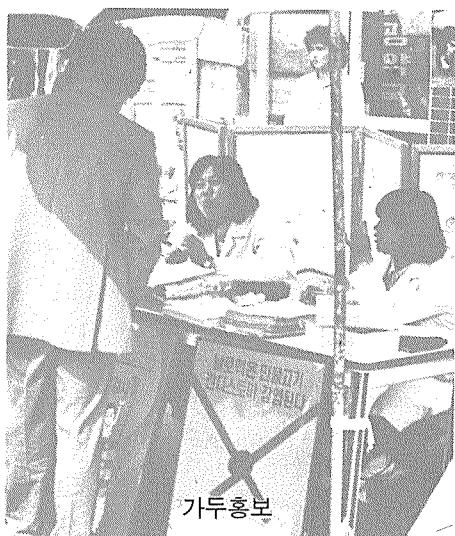
검사장면

국민 건강관리증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서울특별시지부 편 ⑥



지부청사



가두홍보

기협 · 건협

25 시

전직원이 땀과 정성을 모아,  
부여받은 국가적 사업을 성실  
히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  
시 지부의 활동을 지면을  
통해 소개한다.



생충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명예롭지 못한 기생충 왕국이었고 국민 대다수가 기생충 병에 걸려서 불편없는 창백한 얼굴들을 하고 있었으니 문제의 근원을 뿌리째 뽑겠다는 뜻에서 박멸이라는 용어를 택했고 오히려 그 선택은 적절한 것이라 여겨진다. 이즈음 한국 기생충 박멸협회가 발족되어 매년 2회에 걸쳐 연간 1,500만명의 검사건수를 일시에 검사와 투약을 실시하는 소위 집단검사를 개시하게 되었다.

그후 20년이 지난 오늘날의 감염 상태는 5%선으로 떨어졌으니 파격적인 감소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감소 원인은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문화수준 및 국민보건 위생생활의 실천과 보건 의식의 향상, 생활 환경의 개선과 정리, 정돈 등을 들 수 있고 여기서 부단히 추진해 온 집단검변의 영향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기생충 감염을 방지 할 수 있는 3가지 요소는 첫째, 약품 복용에 의한 충체사멸, 둘째, 감염원인 충란을 제거하기 위한 인분의 퇴비화 및 화학비료 사용, 셋째, 매개체 (감염원을 보유하고 있는 물체)를 통한 감염원의 인체 침입 차단, 이 세 가지 중 어느 한가지만 제대로 실시해도 기생충 생활사의 한 부분을 폐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확산 범위를 줄이는 결과가 되어 감염율은 감소 될 수 밖에 없다.

한국 기생충 박멸협회는 이중 첫번째인 집단 검변을 통한 집단 투약으로 기생충을 구축시키는 작업에 중점을 두고

20여년간 지속해 왔고 아울러 홍보 계몽 활동을 전개하여 두번째와 세번째 방법도 병행 추진해왔다.

#### 나. 0 % 달성을 중요성

애초에 박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으니 기필코 목표에는 도달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며 그 목표가 눈앞에 보이는 지금이 최대의 고비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일본의 학생집단 기생충 관리 현황을 보면 1968년에 현재의 우리 수준과 비슷한 5.3%이던 것이 1979년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전력하였던 바 0.1 %까지 끌어 내림으로써 우리의 좋은 귀감이 되고있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현시점에서 관리 사업을 중단 했을 때는 순식간에 과거의 양상으로 되돌아가고 검변 횟수를 줄일 경우에는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현상유지라고 한다 (별표참조) 감염율이 한자리 숫자로 내려올 수록 극히 소수 또는 한마리 기생 예가 많고 그 한마리가 유충(어린충)이나 웅충(수컷)일 때는 검사에서 위음성율이 높으며 따라서 정도관리에 주력함과 동시에 검변 횟수를 빈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집단 검변의 결과를 보면 감염율이 회충, 편충에는 못 미치지만 소위 특수 기생충으로 불리워 지기도 하는 간·폐·장·디스토마(흡충)와 유무구조충 등이 반드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기생충, 즉 간디스토마는 간경변, 간암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유구조충은 낭미충증으로 인한 간질, 실명 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과거에

는 회충 감염율이 워낙 높아서 이 부분(특수 기생충)에는 손을 쓸 여유가 없었지만 지금은 이것도 본격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단계로 보며 정부에서도 5대 강 유역 주민들에 대한 간흡충 치료사업을 작년부터 착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무검사 투약을 주장하는 데 이 경우에 쓰이는 광범위 구충제라고 하는 것은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 등 선충류에는 효과가 있으나 위의 흡충류 및 포충류에는 하등의 소용이 없기 때문에 선검사 후 투약의 중요성이 재삼 강조되고 있다.

## 4. 건강관리 사업의 추진현황

기생충이 근절 되어짐에 따라 이것 못지않게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불청객이 나타났으니 소위 성인병이라고 하는 비전염성 만성질환이다. 여기에는 각종 암을 비롯하여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동맥경화, 당뇨병, 간장질환, 신장질환 등이 있는데 문명의 이기가 선사한 달갑지 않은 손님이기도 하다. 비전염성 만성질환은 국민소득이 높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일수록 많이 걸리는 병이다.

우리나라도 20년 전까지만 해도 각종 전염병이 사망순위 제 1위였는데 현재는 그 자리가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도 성인병관리 전담기관의 필요성이 구체화 되었고 때마침 기생충 관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당 협회가 가장 적격인 것으로 연구검토되어 장비와 기술인력, 예산 등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82년도에 한국건강관리협회로 발족하게 되었으며 83년도 부터 본격적인 사업착수에 돌입하게 되었다. 건강관리협회의 기능은 건강인을 대상으로 건강 검사를 실시하고 유소견자를 전문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교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질병의 조기 발견과 이에 따른 치료, 그리고 사전 예방을 도모하게 되고 이를 위하여 집단 검사와 개인별 내원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3년의 성장기를 통하여 이용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보다 더 알찬 대국민 써어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 직원은 땀과 정성을 모아 부여받은 국가적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명감으로 충만해 있다.

지금까지는 일반 사업장과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86년도부터는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집단까지 포함하여 빈혈 검사, 체력장시에 쓰러지기도 하는 심장질환, 요검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질병의 근원을 어릴 때부터 제거하는 것이 성장에 극히 필요하며,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이러한 검사를 법적, 제도적 뒷받침 하에 10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바다.

## 5. 홍보계몽 사업의 활성화와 추진방향

건강관리 사업의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현대의 관건은 홍보계몽 사업인데 3년여에 걸쳐서 시도한 주요 내용을 보면 각

